

농정뉴스

참깨 · 땅콩도 증산왕 선발로 증산유도

농수산부 식량 증산 시상 계획 쌀 증산단지 2억 3천만원 시상
증산 시상 계획 보리증산왕도 5명 추가 선정키로

정부는 쌀을 비롯하여 보리·콩·참깨 및 땅콩을 증산키위해 이들 작물에 대한 시상계획을 확정했다.

농수산부의 올해 식량증산시상계획에 따르면 쌀 3천 8백만 섬 생산을 위해 쌀 증산단지 4백 10개소에 2억 3천 4백만원의 시상금을, 전국 쌀증산왕 및 도(道)쌀증산왕 20명에게 3천 2백만원의 시상금을 주기로 했다.

특히 농수산부는 오는 91년까지 참깨와 땅콩의 자급을 목표로 증산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올해 처음 증산왕을 각각 뽑아 시상키로 했다.

농수산부는 또 80년부터 자율재배토록 하고 있는 보리의 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는 전국증산왕 1명만을 선정했으나 올해는 전국증산왕 1명과도(道) 증산왕 5명을 시상키로 했

다.

올해 품종별 시상계획은 다음과 같다.

① 쌀

지난해와 같이 증산단지와 증산왕(개인)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. 단지규모는 20ha 이상. 전국최우수단지는 일반계·통일계 각 1개단지씩 구분 시상하지만 도우수(8개도) 및 시군우수단지(4백개시군)는 일반계·통일계 구분없이 단위 수확량의 하한선(下限線)을 넘은 농가중 최고생산농가를 선정하게 된다.

② 보 리

정부는 보리가 겨울 노는땅을 활용하고 아직도 남부지방 농민들에게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올해 전국증산왕 이외에 도증산왕(全南北·慶南

北·濟州) 5명을 추가선정, 증산을 유도해 나가기로 한것이다.

㉠ **콩**

콩은 단지와 증산왕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. 전국최우수단지·전국우수 및 전국 장려단지를 선정하고, 증산왕으로 전국 최우수·전국우수·전국 장려등 3명을 뽑아 시상한다.

㉡ **참깨·땅콩**

이들 작물은 최근 몇년간 수매값 예시등 적극적인 증산시책에 힘입어 재배면적 및 단위생산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. 참깨·땅콩 부문은 각각 3명의 증산왕을 뽑아 시상한다. 발규모는 20a 이상이어야 하고 단위수량 하한선은 ▲참깨는 10a당 1백kg이상 ▲땅콩은 10a당 2백kg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.

**영농·영어·상호금융
연체 금리 2% 내려**

영농·영어자금의 금리가 8%로 인하된데 이어 이들 자금의 연체금리도 2% 포인트가 내린다.

농수산부에 따르면 농·축·수협중앙회는 농어민의 금

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농·영어·양축자금의 연체 금리를 현행 19%에서 17%로 2%포인트 인하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.

농수산부는 또 농·축·수협중앙회의 단위조합들이 운용하고 있는 상호금융자금의 연체대출금리도 22%에서 20%로 2%포인트 인하해 내달부터 실시하도록했다.

복합영농에 5백40억 지원

5백40곳 새시범단지 조성

농수산부는 올해 5백40개소(2천54개마을)의 복합영농시범단지를 새로 조성하고 기존의 시범단지를 포함한 총 1천4백66개소(5천7백40개 마을)의 복합영농시범단지에 5백40억원을 용자 지원키로 했다.

참깨·땅콩·고추·마늘·양파등 경제작물 65개, 양돈·양계등 축산작목 9개, 저장고·개량 공간등 시설및 조원(造園) 17개 분야 등에 지원되는 이번 자금은 영농자금 3백16억원, 시설 및 조원자금 2백4억원과농산물 성출하기에 농산물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유통자금 20억원 등이다.